

農工人의 새로운 課題

安 秉 基

(韓國農工學會 副會長)



요즈음 農村에 가보면 빈집이 너무나 많고 더구나 U.R.로 인하여 栽培할 作物이 없다고 한다. 雪上加霜으로 核家族으로 젊은이는 거의가 離農하여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와같이 斜陽產業이 된 農業이라 할지라도 雄志를 품은 農民들이 더러 버티고 있어 우리가 뒷받침만 잘 해주면 그래도 絶望狀態는 아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農工人에게 부여된 새로운 課題 몇가지로 提議해 보고자 한다.

1. 用水路는 管路化되어야 한다.

오늘의 農業은 健康植物이나 無公害農産物은 잘 된다. 健康에 좋다고 만하면 불티나게 잘 팔린다. 農民이 施設園藝이나 水耕栽培를 하고자 할 때, 用水問題에 봉착하게 된다. 아무리 圃場整備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非灌溉期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都市近郊의 耕地에는 調整池를 통해 用水路를 管路化 해 준다면 都市近郊의 農業은 年中 活性化 될 것이다.

2. 죽어가는 農土를 살려야 한다.

작년 11月 韓國農村經濟研究院과 韓國有機農業環境研究會가 발표한 調查內容은 충격적이다. 이 발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農土는 化學肥料와 農藥이 過多使用으로 有機質 含量이 先進國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土壤속이 有機微生物 숫자도 정상 수준의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農業의 지속적인 生産性 維持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의 化學肥料 使用量은 약 2배, 農藥使用量은 약 3.5배나 증가하였다. 그 結果 農土의 有機物 含量은 대폭 낮아져 美國과 日本의 4.0~5.0%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健康한 흙 1g 중에는 약 2億마리의 有效微生物이 存在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土壤속 有效微生物의 平均數는 약 20% 수준인 4千萬 마리에 不過한 것으로 밝혀졌다.

흙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3~5%의 有機물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는 2.3%, 밭 1.7%의 數値를 보이는 우리나라 土壤의 有機物 含量 水準은, 땅이 죽어가고 있음을 警告하는 것이다.

有機물이 모자라는 農土에 作物을 가꾸려면 당연히 化學肥料의 使用量을 늘릴 수 밖에 없다. 化學肥料 또한 土壤汚染의 한 原因이 된다. 그러므로 現在 全國土의 土壤汚染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土壤은 한번 汚染되면 거의 永久的으로 汚染物質이 存在하게 된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農村은 3D 現象으로 有機質肥料 즉 堆肥의 生産 施用이 어렵게 되어 있으나, 畜産廢棄物이나 下水處理場의 下水슬러지를 原料로 하는 無臭, 固形 有機質肥料의 生産이 가능하고, 地下排水로 汚染物質 除去가 可能할 것으로 여겨진다.

3. 聚落排水와 水邊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快適한 生活環境의 形成과 自然과의 끊임없는 接觸을 갈망하고 있다. 또 都市化와 經濟社會의 高度化가 進진되면서, 日常生活의 스트레스를 씻기 위하여 아름다운 景觀이나 自然속에 들어가 心身의 疲勞를 회복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住居地 周邊의 快適한 生活環境을 確保하기 위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은 『平和로운 마을』이나 『水邊』 등의 自然이 注目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農業土木事業의 成果로서 오늘까지 農村地域에 이룩한 農村景觀에 대한 評價, 遠景으로 본 農村에서 近接해 보는 農村으로 農村環境의 變化가 있어야 한다. 遠景에서 近景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農村의 視点에서 再評價를 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에 이르렀다. 農村地帶을 흐르는 河川이 自然속에 位置하고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河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創出한 自然의 藝術品이다. 거기에는 人類를 포함하여 많은 生物이 寄居하여 왔다. 어떤 것은 水中에서, 또 어떤 것은 水上이나 周邊에서 生活하면서 그 生態系를 形成, 維持하고 있는 것이 河川 즉, 물이다.

우리 人間社會도 河川 周邊에서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發展되어 왔다. 河川空間에는 많은 安息處가 点在하여 있어, 우리가 어릴적의 經驗을 살려 故郷을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며, 原風景 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河川이 오늘날 보기 드물게 되었으며, 이것은 河川空間과 生物生活空間이 共存한 河川에서 그 機能이 각각 分離된 河川으로 變했고, 또 聚落下水의 畜産廢棄物의 汚廢水로 인한 水質汚染 때문이다.

따라서 農漁村整備의 一環으로, 人間의 生活空間과 河川, 그리고 河川을 근거로 動·植物의 生息可能한 水邊空間을 연대한 共生河川의 形成·保全·利用을 圖謀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農業生産의 면에서는 灌溉, 排水, 洪水의 安全流下 및 地下水의 自然排水가 可能하고, 自然生態系의 立場에서는 自然景觀의 保存, 動·植物 生存 및 內水漁業이 可能하고, 地域遺産으로는 地域의 個性化, 郷土文化의 保全·觀光 및 地域景觀의 確保가 可能하다. 또한 레크레이션의 면에서는, 물을 보고 물에 들어가는 水邊公園을 造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要素를 充足시키면서, 農業生産性を 병행할 環境整備가 要望된다.